

##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 신간소개

기사입력시간 : 2024/05/21 [17:44:00]

김인영

대한민국역사와미래총서 3

건국의 아버지들

# 고하 송진우 와 민족운동

김형석 지음



## 민족의 가슴에 불을 지르다

“정부도 없고 엄혹한 감시와 압박의 일제시대에  
오로지 혼자 동아일보를 꿰어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몸 바친 인물은 고하밖에 없다.” - 위당 정인보

동문선

▲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 신간

일제강점기간 독립운동하다 3차례 고문당하며 27개월간 옥고를 치렀지만 친일파로 후세가 오해했다면 과연 그 평가는 정당한가?

일제 강점기 정치적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적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기간산업의 국유화,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토지개혁, 사형제도 폐지등을 주장한 인물을 극우주의자로 낙인찍었다면 그 평가는 옳은가?

역사학자 김형석은 이런 문제의식으로 추적한 연구결과를 ‘건국의 아버지들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김형석 지음)’이란 제목으로 책을 내놓았다.

해방이후 좌우대립의 현대사에서 살아생전 조국독립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건설을 위해 올곧게 살고도 편향적 역사관에 의해 죽어서도 희생을 당한 인물이 송진우 하나일까?

당시를 살아보지 않은 몰이해로 말마암아 후세들이 자신들만의 역사관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한 선조들은 얼마나 많을까? 반대로 살아 부끄러운 삶을 살고도 후세의 편향된 평가덕을 보는 인물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일방적 평가에 따라 국가가 보훈정책 시행을 하면 후손들의 피해가중은 어떠하며 그는 결국 살아있는 권력의 횡포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이 책은 답을 던져주려는 첫 시도일지 모른다. 지나간 날의 정확한 평가와 기록은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후세들이 분열과 대립, 반목을 벗어나 하나된 역사인식과 정체성을 갖고 넓은 미래로 나가는 길을 환히 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이 시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이 틀림없다.